

IBKS Spot Comment

AI/인터넷/게임

이승훈

02) 6915-5680
dozed@ibks.com글로벌 최대 규모 게임
행사 게임스컴 2026 개최크래프톤, NC, 펠어비스
등이 국내 대표 게임사로
출격

[AI/인터넷/게임]

게임스컴 2026으로 본 K-게임의 글로벌 정면승부

1. 게임스컴 2026 개요

게임스컴(Gamescom) 2026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글로벌 최대 규모의 게임 행사이며, 전야 행사인 ONL(Opening Night Live)는 25일에 진행됐다. 올해 행사에는 66개국에서 총 1,743개 기업이 참가해 전년 1,568개사 대비 약 11% 증가했다. 전시장 규모는 작년과 동일한 약 23.3만㎡였으나, 행사 개최 이후 처음으로 사용 가능한 전시 공간이 모두 매진됐다. 국가관 역시 전년 35개국 40개에서 올해 41개국 48개로 확대됐다. 공식 관람객 수는 약 36.8만명으로 작년 관람객 수인 35.7만명 대비 약 3% 증가했다. 참가기업과 국가관, 관람객이 모두 증가하면서 게임스컴은 글로벌 게임사의 신작 공개뿐 아니라 산업 관계자 간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국내에서는 크래프톤, NC, 펠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가 참가했다. 크래프톤은 총 5종의 신작을 출품했으며, NC 역시 3종의 게임을 공개했다. 펠어비스는 삼성전자 부스에서 붉은사막을 시연했다. 이외에도 넥슨은 스웨덴 자회사 엠바크스튜디오를, 카카오게임즈는 자회사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를 통해 참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이어갔다.

표 1. 2025년과 비교한 게임스컴 2026

구분	2025	2026
일시	8/20~24	8/26~30 (ONL 8/25)
장소	독일 쾰른	
참가기업	1,568개사	1,743개사
참가국	72개국	66개국
전시면적	약 23.3만㎡ (올해 전 공간 매진)	
국가관	40개 (35개국)	48개 (41개국)
관람객 수	35.7만 명 (128개국)	36.8만 명 (131개국)

자료: 언론 종합, IBK투자증권

2. 어워드로 본 글로벌 게임 경쟁 구도

핵심 IP로 승부하는
일본과 유럽, 영역을
넓히는 중국
검증된 IP를 리마스터,
후속작 등의 방식으로
확장하는 일본과 유럽

게임스컴 2026 어워드에서 검증된 IP를 보유한 일본과 유럽 게임사의 경쟁력이 여전히 강하며, 중국 게임사의 PC·콘솔 시장 진출이 확대가 나타났다.

일본 게임사 세가(SEGA)는 Best Audio, Best PC Game 부문을 수상했으며, 퍼블리셔 자체도 Best Lineup(전체 라인업의 다양성과 완성도가 가장 뛰어난 퍼블리셔)에 선정됐다. 캡콤(Capcom)도 Best Gameplay(조작감, 메카닉, 전투 시스템 등 게임의 '재미' 자체를 인정받은 올해 최우수 작품), Best Sony PlayStation Game을 수상했다. 폴란드 게임사 CDPR(CD PROJEKT RED)은 'The Witcher 3'의 신규 확장팩과 리마스터를 앞세워 Best Booth, Best Merch, Best Trailer/Announcement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 신규 IP 개발과 함께 이미 글로벌 팬덤을 확보한 기존 IP를 확장하는 전략이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모바일 중심에서
PC·콘솔로 확대하는
중국

한편 중국은 기존 모바일 중심이었던 게임 개발 역량을 PC·콘솔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중국 AAA급 게임 개발사 이클립스 글로우 게임즈(Eclipse Glow Games)는 펄어비스의 붉은사막을 제치고 Most Epic 부문을 수상했다. 에버스톤 스튜디오(Everstone Studio)는 Best Mobile Game 부문을, 명일방주로 유명한 그리프라인(GRYPHLINE)은 Best Booth(Consumer) 부문을 수상했다.

표 2. 게임스컴 2026 어워드 수상작

그룹	부문	수상	장르	개발사 / 퍼블리셔	국가
Arts	Best Visuals	METRO 2039	FPS·서바이벌 호러	4A Games / Deep Silver	몰타
	Best Audio	Alien: Isolation 2	서바이벌 호러	Creative Assembly / SEGA	일본
	Best Gameplay	Onimusha: Way of the Sword	액션 어드벤처	Capcom	일본
	Most Entertaining	Wanderburg	액션 로그라이크 RPG	Randwerk / Sidekick Publishing	독일
	Most Epic	Tides of Annihilation	액션 RPG	Eclipse Glow Games	중국
	Most Wholesome	Finding Polka	어드벤처	Idlocks / Parco Games	일본
	Games for Impact	SOKO 1977	추리·로그라이크	Paintbucket Games	독일
Platform	Best Microsoft Xbox Game	Forza Horizon 6	오픈월드 레이싱	Playground Games / Xbox Studios	미국
	Best PC Game	Total War: WARHAMMER	턴제 전략	Creative Assembly / SEGA	일본
	Best Sony PlayStation Game	Onimusha: Way of the Sword	액션 어드벤처	Capcom	일본
	Best Nintendo Switch 2 Game	Rayman Legends Retold	액션 어드벤처	Ubisoft	프랑스
	Best Mobile Game	Where Winds Meet	오픈월드 무협 액션 RPG	Everstone Studio / NetEase Games	중국
Global	Best Lineup	SEGA	-	심사위원 선정	일본
	Best Booth	The Witcher 3	오픈월드 액션RPG	CD PROJEKT RED	폴란드
	Best Booth(Consumer)	Arknights: Endfield	전략 RPG	HYPERGRYPH	중국
	Best Business Booth	Ubisoft Business Lounge	-	-	프랑스
	Best Merch	The Witcher 3: Songs of the Past - Pin & Medallion	-	CD PROJEKT RED	폴란드
	Best Trailer / Announcement	The Witcher 3 Remastered & Songs of the Past DLC	오픈월드 액션RPG	CD PROJEKT RED	폴란드
	HEART OF GAMING (특별상)	Games Done Quick	-	-	미국

자료: 게임스컴 2026, 언론 종합, IBK투자증권

3. 글로벌 시장 확장의 무대로 게임스컴을 활용한 크래프톤과 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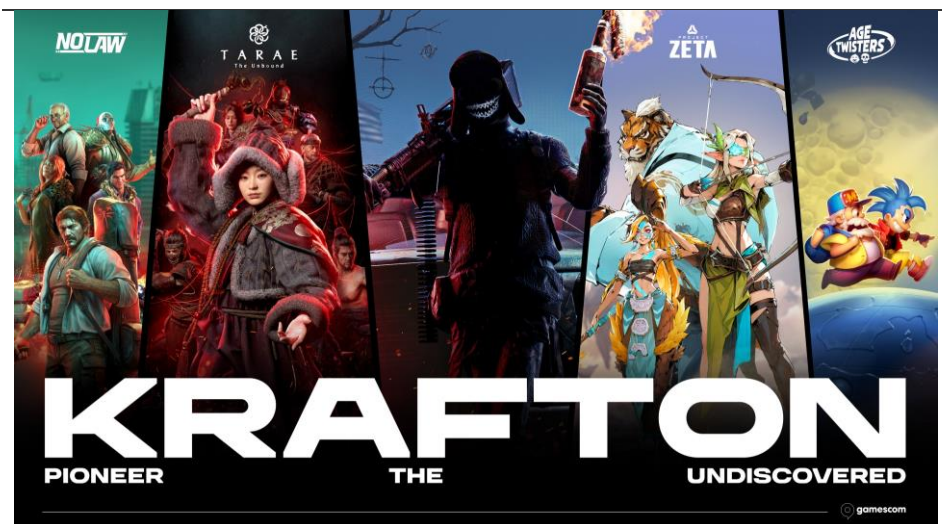
어워드 수상은 없었으나,
신작 파이프라인 공개에
주력

신작 5종을 공개한
크래프톤, 글로벌 이용자
확대를 위한 무대

게임스컴 2026에서 펄어비스의 붉은사막이 Best PC Game과 Most Epic 부문 후보에, 크래프톤이 퍼블리싱하는 피콜로 스튜디오의 에이지 트위스터가 Most Wholesome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향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작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이번 행사를 신작 인지도 확대와 이용자 반응을 확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

크래프톤은 PUBG:데드넷, NO LAW, 프로젝트 제타, 에이지 트위스터, 타래: 언바운드 총 5종의 신작을 출품했다. 5종의 신작 대부분이 2027년 출시를 목표로 한다. 자체 개발 IP인 PUBG:데드넷과 크래프톤 산하 네온 자이언트(Neon Giant)가 개발 중인 NO LAW는 영상 공개와 현장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신작은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시연을 통해 글로벌 이용자와의 접점을 확대했다.

그림 1. 크래프톤의 신작 5종 라인업



자료: 크래프톤, IBK투자증권

그림 2. PUBG:데드넷 현장 체험 부스



자료: 게임스컴 2026, 스마트비즈, IBK투자증권

그림 3. NO LAW 체험



자료: 게임스컴 2026, 이테일리, IBK투자증권

기존 IP와 비MMORPG
신작을 동시에 선보인 NC

NC는 아이온2, 신터시티, 라이크 오어 다이를 공개했다. 이 중 아이온2는 9월 30일 글로벌 얼리엑세스, 10월 5일 정식 출시가 예정돼 있어 하반기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터시티와 라이크 오어 다이는 ONL 트레일러로만 공개됐으며 별도 플레이 시연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림 4. NC의 신작 3종 라인업



자료: NC, IBK투자증권

그림 5. NC 게임스컴 2026 현장 부스



자료: NC,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